

미야꼬(宮古) 이라부초(伊良部町)의 서정민요 '아야구(アヤグ)' 특성

좌혜경*

1. 서

오키나와 현 미야꼬군(宮古郡) 이라부초(伊良部町)는 하나의 섬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다른 지역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민요를 가지고 있었다. 민요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져 자신들의 노래로 인식되고 있다.

섬을 형성하는 두 문화의 특성은 농업지역과 어업지역의 두 갈래로 나뉜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남구(南歐) 이라부(伊良部)지구로는 이라부(伊良部), 나까치(仲地), 구니나까(國中), 나까하마(長浜), 사와다(佐和田)지역과, 수산업을 위주로 생계를 삼는 북구(北歐) 사라하마(佐良浜) 지구인 이께마조에(池間添, イケマゾエ)와 마에자또조에(前里添, マエジャトゾエ)가 있다.

민요에 있어서 이라부 지역과 사라하마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생업에 따른 것도 있지만 특히 사라하마 이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께마조에(池間添)는 원래 이께마지마(池間島)에서 건너 온 민족으로 자신들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전통을 간직하고 전수하고 있고, 또한 사라하마 지역은 남방어업이 성행하여 파푸아 뉴기니아, 파라오, 솔로몬제도 쪽으로 출어하여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데 그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외부세계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 방언을 그대로 간직하고 섬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라부의 ‘도오가니 아야구(ダオガニ, ドオガニ アヤグ)’, 사라하마에서 기우제나 미야꼬쓰츠(宮古節ミヤコツツ)행사 때 추는 구이차 오도리를 하면서 부르는 ‘구이차아야구’(グイチャー, コイチャー アヤグ), 남녀 연애의 사랑 노래 ‘가나샤가마(ガニャシャガマ)’ 등은 이라부초를 대표하는 서정성이 강한 노래들이다.

일반적인 노래의 명칭은 도오가니 아야구, 구이차 아야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야구(アヤグ)라고 한다. 이 명칭은 ‘능어(綾語)로 된 노래’, 곧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된 노래’라는 뜻을 지닌다.

필자는 2000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이라부 섬을 답사 ‘아야구’와 아야구의 민속적 상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서정적인 노래는 섬사람들의 정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사라하마 가나샤가마 53편은 기존문헌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수집하여 공개하게 되었다(浜川孝之 2000)

주요제보자로는 譜久島方上(남, 62세), 森田秋(여, 70), 浜川孝之(남, 70세) 등이다.

이 지역 섬사람들의 민요는 입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심정을 그대로 실어 표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언어 사용 못지않게 시상획득 과정이나 비유적 표현과 수사의 방법 등에서 그 우수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라부 사람들이 노래의 우수성을 감탄하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한 ‘아야구’ 속에 내재한 정서 및 시상획득 과정과 언어전환의 방법

을 고찰하여, 아야구의 서정 미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민요의 유형

1) 이라부 다오가니 아야구(ダオガニ, ドオガニ アヤグ)

다오가니(ダオガニ), 도오가니(ドオガニ)는 주로 이라부 지역에서 불려지고 있다. 인근 지역인 사라하마 지역에서는 잘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다오가니'라는 명칭은 '唐金'이라는 사람이 만든 유형의 노래라는 뜻과 '노다츠다오가니'라는 나무 아래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알려졌다.

다오가니는 서정적인 노래로 입으로 전해지면서 가사는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시간과 공간, 혹은 노래를 듣는 상대에 따라서도 즉흥적으로 달라진다. 또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음악으로 되어있으며 순수하고 소박한 정서가 솔직하게 잘 표현된다.

술잔을 마주하고 서로가 건배를 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노래에 실어 전하기도하고, 주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연인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집 앞을 거닐면서 부르기도 했다. 마치 서양의 소야곡이나 세레나데와 같은 성격의 노래들이라 할 수 있다.

해마다 미야꼬 군 다오가니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라부 사람들도 1999년 도지끼 대회에서 20명이 대거 참석해서 공연하였다.

2) 사라하마 구이차아야구(グイチャー-, コイチャー- アヤグ)

사라하마 지역에서 불려지는 '구이차아야구'는 노래와 춤이 합쳐진 예능의 명칭이다. 곧 '구이차' 혹은 '코이차'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소리에 맞추어 야외에서 추는 춤"인 오도리를 뜻하는 것이고, 아야구는 "춤과 함께 불려지는 노래"를 뜻한다.

사라하마 역시 다른 지역처럼 사츠마 지배 당시에 인두세(人頭稅)라는 가혹한 조세를 공출하여야 만 했다. 춤의 원래 기원은 지배자에게 받칠 상납물(上納物) 생산을 위한 풍요기원과 함께 풍작을 위한 비를 내려 주도록 기원하는 의례행사에서 부터 시작되고, 기원의 장소는 우타키와 같은 신성한 지역에서 행해졌다.(伊良部村史編纂委員會 1978: 1499). 주로 기원하는 의례 집행자인 사제는 쓰까사(神女)들이었다. 이 쓰까사는 일반 가정의 주부 중에서 선택된다. 이 쓰까사들이 제를 지낸 다음 우타키 주위의 넓은 장소에서 많은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원을 만들고 박자와 리듬에 맞추어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우제의 제의기원으로 행해지던 무용 구이차 오도리가 점차 유희성을 띤 연회형태로 바뀌면서 야외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청년 남녀가 여기 저기 넓은 장소에 모여서 청춘의 의기와 남녀 사랑의 정서를 담은 활기에 찬 민속적인 춤을 춘다.

명치(明治)36년(1903)에 인두세(人頭稅)는 폐지되었으나 세금제도를 저주하고 정치를 증오하던 청년들은 이 민속 예술을 영구히 보존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민들 간에 이 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부락의 광장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이차는 비를 기원하면서 부르는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과 연회적 성격이 강해 미야꼬쯔츠 행사 때 불려지는 것으로 대별된다.

(1) 비를 기원하면서 부르는 구이차

비를 기원하는 구이차와 미야꼬쯔츠 때에 부르는 구이차는 가사의 내용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를 기원하는 노래인 아야구 가사는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어서 불려지는 아야구는 신의 뜻에 따라 춤이 만들어지고, 춤을 신에게 받치는, 또는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의 노래가 주가 되며, 춤을 시작할 때 부르는 것은 공통적이다.

대체로 우타키의 광장이나 가까운 네거리에서 춤과 노래를 시작하

면 남녀노소가 모여들어 춤을 춘다. 이때 신녀(神女)들은 국자로 물을 떠서 퍼내면서 비가 내리는 시늉을 하여 유감주술의 효과를 노린다. 그래서 가사에는 춤추는 현장에 대한 묘사, 춤추는 상황에 관한 내용이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비를 기원하는 내용은 풍요 기원과 관계되므로, 비록 남녀연애의 사랑의 정서가 나타나더라도 풍요기원의 유감 주술적인 효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곧 정신적인 비, 위안의 비가 풍부하게 부락에 내려지는 것이다(河村只雄 1972: 301). 현재는 비를 기원하는 구이차는 가뭄이 들었을 때만 하고 있다

(2) 연희 구이차 아야구

연희 형태인 구이차는 주로 복구 사라하마 학구인 이께마조에(池間添)와 마에자또조에(前里添)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풍년제(豊年祭) 미야꼬쓰츠(宮古節)¹⁾때 마에자또조에(前里添)의 붐미야(ブンミヤ)²⁾에 모여서 밤이 새도록 흥성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 우선 구이차를 노래한 후에 가나샤가마(ガナシャガマ)를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가차시를 한다.

곡은 감정을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경쾌한 편이다. 멜로디는 단순하고 리듬도 강약이 명확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춤추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한다.

여자만 혹은 남자만으로 혹은 남녀 혼합으로 원을 만들어서 추는데, 몇사람에서 수십인 혹은 100명이 넘을 때도 있다고 한다. 춤 형식은 어느 정도는 자유이고, 기본적인 형식은 발을 땅에 치고 손을 상하로 흔들면서 손의 박자를 맞추는데, 우선 처음 연습하는 사람들이

1) 음력 9월 경신(庚申)일에 치러진다. 올해는 9월 6~10일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도시에 나갔던 사람들도 아들을 낳는다거나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쌀, 소금, 술 등을 들고서 마을 분들에게 인사하러 온다.

2) 붐미야는 사츠마 당시 각촌에 있는 사무원이 주재하던 반소(番所) 혹은 역소(役所)였다. 사츠마청(廳)에 공납하는 공물(供物)인 미야꼬 상포(上布)를 짜기 위한 마(苧)를 저장하던 곳이다.

경우는 얼굴 앞에서만 그 동작을 취하여 나중에는 자유롭게 추도록 한다.

가사는 풍년을 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人情)을 노래하는가 하면, 춤의 기원, 춤추는 기쁨과 현장묘사 연애나 사랑, 혹은 인간사(人間事)를 노래하고 있다.

3) 가나샤가마(可愛者小 ガナシャガマ)

가나샤가마는 '사랑노래' 라는 뜻이다. 가나샤가마는 주로 미야꼬 쓰츠 행사 때에 구이차를 끝낸 후 부르거나 청년 남녀가 삼거리나 혹은 네거리에 앉아서 강까라(がんから)사미센을 들고 노래를 한다. 혼자서 여러 절을 노래하기도 하고 한 절만을 부르기도 한다. 또 음력 구정부부터 정월 보름까지 집에서 쉬는 기간에는 공을 만들어서 하늘에 올리면서 노는 놀이(まいやらぎ 마이야라기)를 하면서도 가나샤가마를 부른다.

가나샤가마는 이라부와 사라하마 두 지역에서 불려지나 가사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단어가 가지는 소박함의 차이라고 한다.³⁾ 특히 사라하마인 경우는 언어가 독특하기 때문에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를 먼저 배워야한다. 노래는 고정된 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약간의 가사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불려진다.

가사의 내용은 주로 자연물을 이용하여, 객관적 상관물(相關物)로 사용하여 뛰어난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 주로 남녀 사랑의 정서가 노래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남성 화자가 노래를 하면 여성이 그에 응대하여 대답하거나 그와는 반대 형식을 취하는 형식으로 문답체의 형태를 띠거나 또한 남녀공용의 화제를 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노래 속에는 화자(話者)가 등장하는데, 화제에 따라서 남성

3) 譜久島方上과의 대담 중, 譜久島方上은 이라부초민요집 테입 음반을 내었다.

화자, 혹은 여성화자, 혹은 공통의 화자를 취할 수 있다.

3. 아야구의 내용과 시상획득상의 특징

1) 내용적인 면

아야구는 비를 기원할 때 부르는 의식요(儀式謠)로서의 기능 또는 유희요(遊戱謠)의 기능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능의 재현만이 아닌 노래 자체의 서정적인 내용이 역시 중요시된다. 곧 아야구 가사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서정화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래들의 내용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야구'라는 노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춤과 노래에 대한 유용성이 잘 드러난다. 곧 연희의 기능성과 노래의 기능적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아야구는 마음을 맑게 하는 청심(淸心)의 기능과 그리고 정신을 깨끗이 청정(淸淨)시키며, 사람들을 유쾌(愉快)하게 하고 자신들의 건강과 더불어 풍요를 기원하여 신에 바치는, 연인에 바치는 기원의 노래인 것이다.

그래서 노래는 누구나 격정적이고 힘차게 해야하며 이어서 계속 불러나 가야 된다.

한편 노래는 밀의 씨앗처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데, 씨앗이 자라서 많은 곡식이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불려지는 가사가 완전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 짜는 사람이 무늬를 넣는 것처럼 자유롭게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노래의 현장성과 사설 전개 of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신에 대한 감사와 풍요기원의 사설이 나타난다.

* 다오가니 아야구처럼

정말 그러한 것이 있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하는

아야구와 같은 것은 없을 것이요(다호가니 아야구1)

* 건배할 때의 노래, 이 잔의 술은,

금과 은 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 백세까지 이 백세까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다호가니 아야구13)

* 사미센을 켜며 호궁을 키면서

소리를 아름답게 하여

너를 위한 사랑 노래를 한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 21)

* 노래를 알지 못하면

사천(砂川) 주인 집에 가서 배워주세요(아메고이 구이차15)

* 노래를 같이 하며 춤추자

반복해서 원기를 내어 춤추자

손발을 맞추어서 신을 존중하는 것을 제일로 하자(연희 구이차3)

* 서로 바꿔 가면서 춤추고 노래하자

힘을 내어 춤추고 노래하자

나도 노래하고 모두가 노래하자(연희 구이차6)

노래가 이어지지 않으면 씨가 없는 것과 같다.

*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목소리가 막힘이 없고

천을 짜는 사람은 무늬를 만드는 것은 자유이다

모두 즐겁게 춤추자(연희 구이차7)

*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노래를 못한다

곡도 이어나가지 못한다

이어지지 않으면 씨가 없는 것과 같다.(연희 구이차8)

* 노래를 하려면 여름의 소낙비처럼 불러라

격정적으로 비가 내리는 듯이 계속해서 불러라

발을 힘차게 밟으면서 힘을 내서 춰라

발자국소리가 세계 장단을 맞추면서(연희 구이차9)

* 놀음도 즐겁고, 춤도 즐겁고 구이차 오도리여

구이차를 하지 않으면 손해다(연희 구이차10)

* 노는 곳은 길의 십자로

구이차를 하는 곳은 자-가마(연희 구이차22)

둘째는, 물로 둘러 쌓인 섬의 격절된(隔絶) 한계 상황을 긍정하고 삶에 대한 시각이 공존적이며 화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노래 자체가 지니는 특성이 밝음의 이미지를 지니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평안을 갈구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축원해주고 축복하는 노래 차체의 성격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한편 이라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과 동시에 향토애를 느낄 수 있다.

* 작은 계는 물이 적을 때는 밑에

물이 많을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새우들이 탈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탈피하면서 같이 살자(사라하마의 하이미야)

* 섬 중에 가장 큰 섬은 大神島

제일 낮은 섬은 이께마 섬

제일 살기 좋은 섬은 사라하마(사라하마 가나샤가마52)

* 섬이 있는 이 세상이 있는 한

우리 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31)

* 음력 9월은 사시바가 오는 계절

친구여, 우리들도 이 새처럼 언제나 이 섬을 지키자(사라하마 가나샤가마6)

* 서쪽우물의 작은 산

큰 그물을 넓게 드리워서
 아이들이 달려나오고
 모여서 함께놀자(아메고이 구이차4)

- * 임신출세는 遺傳에 달려있어도
 노력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다오가니 6)
- * 행운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니
 신이 가까운 곳에 있고
 노력하여 승리를 얻자(다오가니7)

셋째는 낭만적인 사랑과 연애를 노래한 사설이 노래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아야구가 남녀가 같이 어울려 놀면서 불려지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가 대부분인 것은 당연하다. 남성은 상대 앞으로 가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연애와 사랑 노래를 한다. 이에 여성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즉흥적인 가사를 대답한다. 이러한 교환창의 노래형식은 남녀의 대등적 위치를 증명한다. 제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맹세와 의지를 표현하거나,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초조한 심정, 여성이 남편을 기다리는 심정 등이 잘 드러난다.

- * 섬의 뿌리인 돌이 흔들려도
 바다의 물이 다 말라도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53)
- * 당신이 내쳐로 되어 준다면
 백사장의 모래도 헤아릴 수가 있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17)
- * 철선이 끊어지고 끊어져도 그녀와 내가 맹세한 인연은
 끊어질 수가 없구나(다오가니30)
- * 정원에 쌓아 놓은 돌담,
 가쥬마루에 둘러 쌓여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한테 안겨서 행복해지고 싶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39)

- * 북풍이 불어도 잔잔한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 소리는 당신이 오는 소리
기다리지만 바람뿐이네(사라하마 가나샤가마44)
- * 아버지 사이에는 노를 저어 이께마 섬을 다녀도
나의 힘을 보태서 건너와 주세요(사라하마 가나샤가마35)

넷째는 노골적인 남녀간의 육감적인 사랑 표현이 솔직하게 묘사되고 있어 한국 고전시가 중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남녀상열지사(男女相熱之辭)적인 노래들을 연상시킨다.

- * 지금 곧 길가의 문에서 기다리세요
부모님이 주무시면 나와서 하나가 됩시다.(다오가니25)
- * 하룻밤의 첩이라도 唐과 大和까지도
소문이 나면 소문나는 데로
평이 나면 나는 데로 사랑할거야(아메고이 구이차7)
- * 두 손 모아 문신(門神)에 빈다
내가 가면 문 열쇠를 끊어 그녀를 만지게 해주세요(사라하마 가나샤가마50)
- * 바위에 치는 파도는 바위를 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이 생각하는 여자를 안을 때까지는(사라하마 가나샤가마29)
- * 길옆에 핀 가시풀이 부럽다.
풀도 치마를 넘길 수 있는데
내가 풀이 되었으면 좋겠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15)
- * 아침에 시원하고 청량한 물을 적셔 마음을 씻어도
사랑하는 연인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겠지(사라하마 가나샤가마8)

다섯째는 인간사와 교훈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은공에

보답하기 위해 효를 권장하거나, 가화만사성, 혹은 가족 구성원간의 협조와 가족간의 사랑을 권장한다.

- * 닭의 울음이 새벽을 만드는 것처럼
가르쳐 이끄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다오가니5)
- * 비탈지거나 평지에 난 싹처럼
바람이 불어 휘날리는 것처럼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자(다오가니22)
- * 귀여운 어린아이가 곧 성장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
원기와 용기가 충만해진다.(다오가니28)
- * 아름다운 달도 14일이지만
아름다운 여자도 17-8세가 최고다(아메고이 구이차6)
- * 부모가 있으면 밖에 나가 자유로이 놀 수가 없고
말을 나쁘게 하면 나빠지고 좋게 하면 좋아진다.(연희 구이차16)
- * 대양에서 배를 달리는 것은 고생스럽다.
그것보다도 아내의 집에 가서 문을 여는 것이 더욱 힘들다(사라
하마 가나샤가마7)
- *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음씨 고운 사람을 난 좋아한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25)
- *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하고
세상일도 모른다.
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한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
26)
- *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큰집도 나는 싫고
좋아하는 사람과는 냄비 하나만도 좋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
27)
- * 아무 것 없이 길바닥에 나왔어 생활하지 못한다
큰집이 차라리 좋겠지(사라하마 가나샤가마28)

이처럼 아야구는 삶의 정서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이는 이라부 지역 사람들의 삶이고 그들의 사고이며 의식이다. 유쾌하게 놀면서 신에게 의지하고 기원하며 서로가 화합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계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섬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신과 자연, 인간의 조화된 모습 그 자체였다.

2) 시상(詩想)획득과 언어전환

아야구는 생활에서 느낀 삶의 정서가 진솔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진 전승의 문학이기 때문에 시상획득이나 비유적인 표현 등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난다. 노래구연 현장에서 즉흥적인 문답체 구연과 또한 생산된 가사가 구비 전승되면서 전통성을 지니고 공동의 문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우선 시상획득의 과정을 나누어서 분석해보면,

첫째, 민요에서 노동이나 연희 의례 등의 노래의 기능성(機能性)과 기능적 목적, 진행과정이 드러난 형식의 노래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래들은 의례나 춤, 혹은 유희 기능성을 서술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체적으로 연행(演行) 과정에서 가장 처음 부분에서 노래된다.

- * 우리들 모두가 모인 것은 함께 노래하고
이 구이차는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는 풍년이요, 내년에도 점점 풍년이 들어 안심하세요(아메고 이 구이차1)
- * 다오가니 아야구 처럼 유쾌한 노래가 있는가
내일 밤도 모여와서 노래하며 들어봅시다.(다오가니 아야구2)
- * 신을 믿고 믿음의 노래를 불러
천의 신, 훌륭한 신을 믿고 도움을 받아 행복하자(사라하마 가나 샤가마 중3)
- * 노래 부르는 순서가 돌아오니

자신이 노래해서 모두가 노래하자(사라하마 가나샤가마 중5)

둘째, 자연에서 시상을 획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직접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시적(可視的)이면서 즉물적(卽物的)인 사물을 가지고 노래하는 데 자연과 인사를 비유하면서 노래한다. 인간사가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일치하는 자연 동화적인 정서를 노래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화해적이며 낙천적이다. 그 형식은 $a+b$, 혹은 $a+a+b$ 의 형태를 취한다. 곧 자연(a)과 인사(b)의 두 의미를 지닌 한 수의 노래가 대등하게 나타나거나 삼단 논법의 구성처럼 맺는 형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 닭의 울음이 새벽을 만드는 것처럼
가르쳐 이끄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다오가니5)
- * 북극성이 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애정도 이별처럼 변하지 말자(다오가니 10)
- * 바다 가재와 도마스는 바다의 암초에 태어나고
까마귀는 소나무 가지에 알을 낳고
행복한 가정에는 좋은 자식이 태어난다(다오가니11)
- * 깊은 산의 아당 나무 열매가 말라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같이 행동하자(다오가니27)
- * 어느 구름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어느 구름에 부탁할까나(다오가니4)

셋째, 정서의 승화과정을 겪은 노래들이다. 특히 구연되면서 아름답다고 인정되거나 공감대를 형성한 노래들인 경우 고정적이거나 관용적으로 불려지는 보편적인 정서를 지닌 노래들이다.

- * 북극성이 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애정도 이별처럼 변하지 말자(다오가니, 10)

- * 철선이 끊어지고 끊어져도 그녀와 내가 맹세한 인연은
끊어질 수가 없구나(다오가니, 30)

- * 길옆에 핀 가시풀이 부럽다.
풀도 치마를 넘길 수 있는데
내가 풀이 되었으면 좋겠다.(사라하마 가나샤가마15)

4. 결 어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꼬군 이라부 지역에 유전(遺傳)하는 민요는 지금도 현장에서 지역민들이 직접 노래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특히 개인의 정서가 강하게 표출된 노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다. 유형은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면서 부르는 주술적(呪術的) 기능을 지닌 의식요(儀式謠)와, 청년들이 모여서 춤추고 놀면서 부르는 유희요(遊戱謠)로 분류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래를 '아름답다' 라고 해서 '아야구' 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야구와 함께 추는 춤을 구이차 혹은 코이차라고 한다. 구이차 오도리를 하면서 부르는 아야구는 의례(儀禮)진행을 위한 사설도 나타나지만, 개인적 서정이 강한 사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미야꼬쓰츠(宮古節) 행사 때 행해지는 오락과 연희(演戱)를 위한 구이차아야구나 가나샤가마는 남녀의 사랑 정서를 솔직히 표현한다.

섬사람들은 노래 가사를 통해 연희의 기능성(機能性)과 노래의 유용성(有用性)을 담고 있다. 그래서 노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

신을 '청정(淸淨)하게 한다' 라고 여기고 있으며, 풍요를 기원하여 신에게 받치는 것, 연인(戀人)을 위해 부르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노래의 특징은 미야꼬 샤츠마의 침략과 지배의 역사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밝은 이미지의 노래들이 많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을 사랑하는 평화적인 이미지를 지닌 노래들이다.

남녀 사랑을 표현한 노래에서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기다리는 심정, 육감적인 사랑표현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은공(恩功)에 대해 효를 권장하거나 가족간의 사랑을 권장하는 교훈적인 노래들도 있다.

대부분 노래들 시상(詩想)은 자연물이나 객관적 사물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가시적(可視的)이면서도 즉물적(則物的)인 표현으로 직접 감각으로 느끼도록 한다.

또한 인간사(人間事)가 자연의 원리에 동화(同化)적인 정서를 가지고 노래해서 삶에 대한 이해가 화해적이며 낙천적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노래를 '아름답다' 고 여기면서 사랑하는 한 그들의 공통된 정서를 노래한 아야구는 계속 전승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浜川孝之

2000 沖繩縣 宮古郡 伊良部町字 前里添 167)所藏.

外間守善·新里幸昭

1978 『南島歌謠大成 3』, 宮古篇 角川書店.

日本放送協會編

平成 2년 『日本民謠大觀』, 宮古諸島篇.

河村只雄

1972 『南方文化の探究』, 庶繩: 沖繩文教.

1990 『南海の歌と民俗』, 沖繩: Orkinawa Bunko.

仲宗根辛市

1985 『宮古風土記』, 沖繩: ひるぎ社.

1998 『島うた紀行』, 沖繩: 琉球新聞社.

國文學特輯

1979 “南西諸島の古歌謠”, 『國文學』, 第44卷 8號.

伊良部村史編纂委員會

1978 『伊良部村史』, 宮古: 伊良部村役場.

The Characteristic of Lyric Folk Song 'Ayagu' in Miyaggo Erabuchyo

Choa Hye Kyung

A folk song handed down in the Irabu area, Miyakko Gun, Okkinawa Hyun, Japan is a living organism, and has still vividly been singing by the local people. Songs exploded with strong emotion of individual have formed sympathy, and have been singing by many people. The type is classified with two things. One is a ceremony song with an incantatory function in which people perform a ritual praying for rain. The other is a playing song in which young people dance and sing a song all together.

They call their song 'Ayagu' because of its 'beauty'. The dancing with Ayagu is called 'Guicha' or 'Koichya'. Though Eyagu with the Guichya Odori has the story for the progress of a ceremony, the story of strong emotion of individual is taken most parts.

Also 'Guichyaayagu' or 'Ganasyagama' for the entertainment and playing performed in an event of 'Miyakkojjeucheu' express honestly the emotion of love between man and woman. People living in an island express the function of playing and the utilization¹ of songs through the words of a song. Therefore, they regard the songs as making the heart and the mind clear, and they also regard it as something to devote to God praying for rain, and something to sing a song for the lover.

Despite of its historical background of invasion and control by Syacheuma, there are lots of bright songs. It is optimistic on the life, and has

a peaceful image to love their own islands.

In the songs to express the love, the mind to miss the lover, the waiting mind and the expressions of sensual love appear remarkably. Besides, there are the songs to recommend the obedience to parents on their thankfulness and to encourage the love between family members. Most of songs express the poetical idea using the nature or objective objects. With the visible and objective expressions, it can feel in the direct sense.

As the daily life of human is sung with the assimilative emotion on the principle of nature, the understanding of life is reconcile and optimistic. As long as they regard their song as 'beautiful' and love them, Eyagu, which their common emotion was sung, would be possible to continually pass down.